

# 시간일기와 자기기입식 시간측정의 비교: 성별, 종사상지위별 유급노동시간을 중심으로

손 문 금\*

본 글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유급노동시간과 시간일기 조사방법에 의해 계산된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성(gender)과 종사상지위(the status of work) 집단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04년에 실시된 제7차 『노동패널조사』와 1999년에 실시된 『생활시간조사』이다. 분석결과 먼저, 전체적으로 약 3.2시간 평가시간이 일기시간보다 길게 나타나 유급노동시간이 과대평가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행동들처럼 노동은 다른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관적인 유급노동시간의 평가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포함하여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시간일기에서는 노동이외의 시간이 유급노동시간에서 제외되고 계산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는 현대의 삶의 속도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과중한 노동량, 노동속도와 노동강도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객관적인 시간일기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짐작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는 주당 46~55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과소평가하고, 그 이상은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평균 노동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거나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주류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여성들은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해 남성보다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성역할관념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경험, 여성의 이중부담에 따른 시간부족인식의 영향으로 해석해보았다. 셋째, 임금근로자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1.6시간 과소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6.9시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비임금근로자들은 동시행동이 많이 발생하고, 노동장소에서 노동과 노동 이외의 다른 행위들이 혼합되어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들의 노동의 성격을 통해 해석해 보았다. 또한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노동시간 통계치 외에도 더 긴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이 옳다는 것이 밝혀졌다.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유급노동<sup>1)</sup>시간은 중요한 사회적·경제적 지표이다.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한 국가의 생산성을 측정하거나 직업별, 산업별, 성별 유급노동시간의 길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또한 삶의 질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초들 중의 하나도 유급노동시간의 감소와 관련된다. 인류는 기술발전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동시간이 감소할 것이고 이에 더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게 될 것으로 믿어왔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

\* 충북여성발전센터 연구개발팀 팀장, 사회학박사

1) 본 논문에서의 유급노동(paid work)은 화폐획득을 위한 시장노동으로 정의하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은 화폐획득을 위한 활동으로 판단하여 유급노동에 포함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본 글의 <부표 1> 시간분류를 참고하기 바란다.

에서는 자본주의 발전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증가시켜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Schor, 1992; 1998), 특히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남성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Hochschild, 1997; Robinson & Godbey, 1997). 또한 집단 간에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대사회의 화두인데 미국사회에서는 고학력의 전문가관리자 집단과 대규모 회사집단(Jacobs & Gerson, 1998: 451), 미취학자녀를 가진 여성·생산직의 자녀를 가진 여성(Sullivan & Gershuny, 1998: 335-336)이 과잉노동하는 집단으로 지적된다.

한국사회에서도 유급노동시간을 둘러싼 논의는 다양하다. 주5일근무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주당 40시간 노동이 법정 유급노동시간으로 책정되었지만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노동시간은 OECD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재훈, 2001: 2). 또한 양극화와 관련되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임금, 근로조건 뿐 아니라 유급노동시간도 더욱 긴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이병훈·김유선, 2003: 137).

그러나 이런 많은 유급노동시간을 둘러싼 논의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유급노동시간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통계치에 포함된 노동시간외에도 더 긴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이은진, 2002: 299). 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인식하는 노동시간은 실제 노동한 시간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행해지는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시간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사실이며, 서구사회에서는 개인이 평가한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응답이 과소평가되거나 과대평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obinson & Godbey, 1997; Robinson & Gershuny, 1994; Robinson & Bostrom, 1994; Jacobs, 1998).

한국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조사방법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발표된 논문이 없다. 특히 성과 종사상지위집단에 따라 개인이 평가한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응답이 실제 노동한 시간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서구 학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Robinson & Gershuny, 1994) 그 정도가 실제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유급노동시간과 시간일기 조사방법에 의해 계산된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성(gender)과 종사상지위 집단 사이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할 것이다.

## II. 유급노동시간의 조사방법

유급노동시간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크게 자기기입식(self-reported, estimated)과 시간일기(time use diary)방법이 있다. 자기기입식은 응답자가 지난주의 노동시간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적는 형태이다. 구체적인 질문방식은 “지난주에 통틀어 몇 시간 일을 했습니까?” “지난주에 수입되는 일을 몇 시간 했습니까?” 또는 “지난주에 실제로 일한 모든 근무시간을 요일별로 적어주십시오”, “현재 정규근로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몇 시간입니까? 주당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등이다(이하 이러한 방법으로 조사된 시간

을 주관적인 ‘평가시간’이라 칭함). 이 방법이 지금까지 노동부와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유급노동시간의 측정방식이다.

시간일기법은 시간수지(time budget) 정보를 모으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응답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직접 24시간동안 행한 활동을 10분이나 20분 간격으로 기입하는 방법이다. 시간일기 자료의 중요한 특징은 그날의 24시간이 모두 보고 되며 모든 인간의 행동이 포착되고 표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는 유급노동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루 24시간동안 행한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연구자는 이러한 행동의 흐름 속에서 유급노동시간을 계산해 낸다(이 시간일기법에 의해 조사된 시간을 객관적인 ‘일기시간’으로 칭함). 한국사회에서 시간일기법을 사용한 조사는 ‘생활시간조사’<sup>2)</sup>자료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급노동시간량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와 『생활시간조사』,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와 『소규모사업체 노동통계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 한국방송공사의 『국민생활시간조사』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각 조사는 유급노동시간량에 대한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이 서로 다르다.

노동부의 『노동통계조사』 자료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1998년 이전의 조사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서 5,300개 표본사업체의 사업체 및 근로자가 자기기입식으로 월평균 노동시간에 대해 응답한다. 실근로일수와 실근로시간수에 대해 정상근로시간수 및 초과근로시간수를 조사하고 정상 및 초과근로시간을 합하여 월평균 근로시간을 구한다. 다음 (월평균근로시간/30.4)×7을 하여 주당평균근로시간으로 발표한다. 『소규모사업체 노동통계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를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5~9인 사업체) 조사한 것으로 조사방법은 『노동통계조사』와 동일하다. 하지만 노동부의 조사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이 응답대상에서 누락되며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조사』는 약 33,000 표본가구 중 조사대상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의 상주하는 인구 중 만15세 이상인 개인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매월 조사된다.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은 ‘지난주에 통틀어 몇 시간 일을 했습니까’이며 해당 질문에 대해 응답자가 스스로 기입한다. 이 조사는 노동부의 조사와 다르게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지난주에 수입노동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지난주에 수입노동이 1시간 이상 있었던 임금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및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1981년부터 시작되어 매 5년마다 실시된 KBS의 『국민생활시간조사』와 1999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시간일기 방법을 사용하는 조사이다. KBS의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는 15분 간격으로 하루 행동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시청률조사라는 특정 목적 하에서 수행되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할 수

---

2) 한국사회에서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정학 내에서 논의되어 왔다. 가정학 내에서 시간은 가족자원의 하나로 인식되었고 이에 시간소비를 통한 가정재생산 개념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시간관리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생활시간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가정학 내에서 행해진 생활시간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문숙재(1996)의 『생활시간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없다.

반면 1999년에 처음 실시된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국민들의 시간활용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전국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의 표본규모를 가진 조사이다. 이 조사는 17,000여 가구 10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들이 이틀간의 시간일기를 10분 간격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주된 행동, 동시행동, 행동장소 등을 기록하였고 125개의 행동코드로 분류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의 24시간을 시간일기를 통해 모두 조사하여 하루 생활 중에서 유급노동이 차지하는 비중과 유급노동시간과 다른 생활시간과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에는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도 조사되었으며 임금근로자들 중에서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모두 조사되었다. 특히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경제활동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수입되는 일을 몇 시간 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시간일기에 기록되는 유급노동시간(일기시간)과 자신이 직접 계산하여 기록하는 유급노동시간(평가시간)을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조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도시조사구에 소속된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1998년부터 5,000가구를 매년 추적조사하고 있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조사는 지난주에 수입노동이 있었던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일용직)와 비임금 근로자(고용주, 자영업자,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로 하여금 지난주에 실제로 일한 모든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각 기입하게 하는 방법과 지난주의 근로시간을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평균근로시간과 정규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적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04년 부가조사에서는 11가지 행동에 대해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할애한 시간을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나누어 기입하고 있다. 이에 유급노동시간 뿐 아니라 자기기입식에 의해 평가되는 무급노동시간과 여가시간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sup>3)</sup>

3) 지금까지 제시한 조사자료 종류에 따른 유급노동시간은 다음과 같다.

<조사자료 종류에 따른 주당 유급노동시간의 변화>

단위: 시간

자료명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경제활동조사	53.9	55.1	53.7	52.5	52.3	51.4	50.1	50.4	50.6	50.4	49.8	49.1	-
노동통계조사	51.6	51.9	48.2	47.7	47.3	46.7	45.9	47.9	47.5	47.0	46.2	45.9	45.7
소규모사업체조사	-	-	-	49.8	47.9	48.3	53.7	50.3	51.1	50.3	51.0	50.3	-
노동패널조사	1	-	-	-	-	-	54.7	55.4	55.5	54.5	53.8	53.0	-
	2	-	-	-	-	-	55.8	55.9	55.1	53.4	53.7	52.9	53.7
국민생활시간조사	-	43.6	48.4	47.5	-	-	-	-	-	-	-	-	-

주:노동패널조사의 1번은 지난주에 ‘실제로 일한 모든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각각 적도록 한 결과이며(2004년은 조사되지 않음), 2번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주당 평균 ‘정규근무시간’과 ‘초과근무시간’을 합하여 산출한 값이다.

자료: 통계청 DB, 『경제활동조사』 보고서.

노동부 DB, 『노동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조사』 보고서.

KBS(1985, 1990, 1995), 『국민생활시간조사』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지난주에 통틀어 몇 시간 일을 했습니까’ 또는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물어보는 자기기입식 조사방법은 응답자가 이 질문에 쉽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급노동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응답자는 ‘지난 주’라는 질문에 대해 그들이 일하거나 일하지 않은 각 요일을 생각하고 일한 요일의 일한 시간을 더해서 대답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기입식의 ‘주관적인 평가시간’은 문제점을 가진다. 이러한 질문에 응답자는 그들이 계약자와 맺은 노동시간이나 특정 종류의 노동자에게 관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노동시간 또는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어 관례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 또한 응답자는 가능한 스스로를 인상적으로 나타내고자 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즉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일 이외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며 피곤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일하기보다는 소일삼아 일한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 TV를 많이 보는 사람, 직장 과 가정에서 힘들게 일하는 엄마라는 인상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일’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 이동시간을 포함하는지, 근무시간에 가진 휴식시간, 기계가 고장난 시간, 옷을 갈아입는 시간, 점심시간, 집으로 가져와 일한 시간 등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Robinson & Gershuny, 1994: 12).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시간’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나타난 방법이 바로 시간일기를 쓰는 방법이다. 시간일기를 작성하기 위해 응답자는 하루 동안의 모든 행동을 기억해낼 것이다. 응답자들은 행동의 연속성을 떠올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 스스로의 인상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연적인 시간적 흐름과 응답자의 행동이 분리되지 않고 시간일기에서 응답자들은 하루 동안 일어난 행동들을 보고하면 되고, 연구자는 응답자가 기록한 연속적인 행동의 흐름을 따라 각 행동의 시간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시간일기’ 방법도 그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는 한다. 조사자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고(성적이거나 생리적인 활동은 보고하지 않음), 말하고자 하는 것 이상을 알 수 없으며 응답자가 보고를 왜곡하여도 통제할 수 없다. 또한 시간일기에서 응답자들이 일상을 설명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어떤 응답자는 31개의 활동을 서술하고, 다른 이는 40개 이상의 활동을, 또 다른 이는 10개 이하의 활동만을 서술할 수도 있다. 미국의 시간일기 자료에서는 행동을 적게 보고할수록 평균 생활시간의 양이 더 길게 제시된다. 보고한 행동이 더 적은 응답자들의 일기는 더 일하고, 더 자고, 더 TV를 보는 반면 가족을 덜 돌보고, 덜 이동하고, 덜 식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binson & Godbey, 1997: 63-67).

위와 같은 조사방법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한 학자는 니에 미였다(Robinson & Gershuny, 1994). 그녀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기입식 평가 시간과 시간일기에 나타난 노동시간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발견하였고 특히 서비스종사자, 자영업자와 같은 특정 형태의 노동자들에게서 이러한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로빈슨과 고드베이는 시간이 부족하고 서두르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은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혼의 취업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무급노동)에 대한 기존의 책임에 유급노동을 더하게 되었고 이에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서 그들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해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Robinson & Godbey, 1997: 92-96). 결국 자기기입식 유급노동시간과 시간일기에 나타난 유급노동시간 사이에 차

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사회심리적요소들(시간부족인식, 자기상에 대한 인식 등), 노동조건(직업, 산업 등), 인구학적 요인(성, 연령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Jacobs, 1998: 44).

이러한 외국에서의 발견들이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할 것인가? 특히 성과 그들의 종사상지위에 따라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본 글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2004년에 실시된 제7차 『노동패널조사』와 1999년에 실시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04년 『노동패널조사』는 4,762가구 11,661명이 조사되었다. 1999년 『생활시간조사』는 16,375가구의 표본으로부터 10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 42,973명이 이틀간의 시간일기 85,906<sup>4)</sup>개를 작성하였다.

이 글에서 분석한 대상은 먼저, 집중적인 노동시기로 생각되는 20~59세 연령으로 한정하였다. 20세미만의 연령층에는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에는 은퇴한 노인들이 포함되어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다른 경험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패널조사가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금까지 생활시간에 대한 연구는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여성들에 대한 독특한 생활시간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문숙재, 1999) 『노동패널조사』와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직업이 농/임/어업종사자인 경우를 제외하였다.

최종선택된 분석대상은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11,247명,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77,695명이다.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응답자들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1>이다.

---

4) 42,973명의 이틀 분 시간일기 중 하루의 모든 행동시간의 합이 1,440분이 되지 않는 40개의 시간일기를 삭제하여 총 85,906개의 시간일기가 남았다. 본 논문에서는 이하에서 모든 분석을 시간일기로 분석할 것이며 따라서 85,906명이라고 칭할 것이다.

<표 1> 분석대상

단위: 명(%)

구 분		노동패널조사	생활시간조사
전 체		11247(100.0)	77695(100.0)
성	남성	5403(48.0)	36294(46.7)
	여성	5844(52.0)	41401(53.3)
종사상 지위	임금	상용	3303(29.4)
		임시·일용	923(8.2)
	비임금	고용·자영	1289(11.5)
		무급종사	332(3.0)
유급노동 없음		5400(48.0)	39191(50.4)

주: 조사대상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는 일주일에 1시간이상 수입이 되는 일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일주일에 18시간이상 수입이 되는 일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4),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위의 표에서 보듯이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더 많이 조사되었고,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지난주에 소득활동이 없어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된 사람이 48%이고, 소득활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상용직의 임금근로자가 29.4%, 고용주·자영자가 11.5%, 임시직·일용직의 임금근로자가 8.2%, 무급가족종사자가 3.0%로 파악되었다. 반면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지난주에 소득활동이 없었던 사람은 50.4%로 『노동패널조사』보다 약간 많고, 여성이 53.3%로 남성보다 많이 조사되었으며, 임금근로자가 34.7%, 고용주·자영자가 11.7%, 무급가족종사자가 3.2% 조사되었다.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상용직과 임시직·일용직의 구분이 불가능하지만 임금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은 『노동패널조사』와 많은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기입식에 의해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유급노동시간과 시간일기 방법으로 조사되는 유급노동시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성(gender)과 종사상지위(the status of work)에 따라 유급노동에 대한 자기기입식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검토해 보면서, 유급노동시간을 일기시간에 비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집단은 어느 집단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급노동시간의 주관적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이 가지는 차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연구문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유급노동시간은 조사방법(시간일기 vs. 자기기입식)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가?
- 성별, 종사상지위별로 유급노동시간을 일기시간에 비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있는 집단은 어느 집단인가?
- 성별, 종사상지위별로 유급노동시간을 과대평가와 과소평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 3. 측정

먼저, 『생활시간조사』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의 측정방법을 살펴보면,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농임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임어업일, 구직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관련 행동을 포함하는 일시간을 포함하여 유급노동시간으로 계산하였다.<sup>5)</sup> 이렇게 계산된 유급노동시간이 객관적인 일기시간이다. 또한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주된 일을 지난 1주간 총 몇 시간 하셨습니까?(초과근무 포함)’라는 질문을 통하여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주관적 평가시간을 묻고 있다. 그런데 시간일기가 한 사람 당 하루분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일기시간을 구할 수 없다. 이에 집단별(성, 종사상지위, 노동시간)로 각 요일별 평균 유급노동시간을 구하고 난 후에 다시 각 요일의 평균을 더하여 그 집단의 주당 평균 유급노동시간으로 삼았다.

다음으로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라는 지표는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주관적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에 나타난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로 그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 \text{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 & = \text{평가시간} - \text{일기시간} (+ \text{이면 과대평가, } - \text{이면 과소평가}) \end{aligned}$$

『노동패널조사』에서 유급노동시간은 두 가지로 측정되었다. 주당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쓰는 방법과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주된 취업활동, 부업, 구직활동시간<sup>6)</sup>을 쓰는 방법이다. 두 방법 모두 자기기입식 평가시간에 해당되며 두 조사방법에 따른 유급노동시간의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 IV. 분석결과

### 1.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아래의 <표 2>는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생활시간조사』의 평가시간과 『노동패널조사』의 평가시간이 조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5) 『생활시간조사』의 시간분류와 행동분류에 대해서는 <부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취업자의 근로활동, 출퇴근시간 등 일과 관련된 활동 전반의 활동을 포함한 주된 취업활동, 주된 일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활동인 부업, 이력서 작성, 취업알선기관 방문, 취업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면접 등의 구직활동을 포함된다.

<표 2>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단위: 시간)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 집단	생활시간조사			
	분포 명(%)	평가시간 집단평균	일기시간 <sup>1)</sup>	차이 <sup>2)</sup>
0시간	38665(49.8)	0	17.9	-17.9
1~17시간	1976(2.5)	9.7	30.4	-20.7
18~25시간	1564(2.0)	21.7	35.3	-13.6
26~35시간	2064(2.7)	31.2	39.0	-7.8
36~45시간	6213(8.0)	41.8	47.2	-5.5
46~55시간	9375(12.1)	50.3	52.3	-2.0
56~65시간	7646(9.8)	59.7	56.1	3.6
66~75시간	5340(6.9)	70.2	60.6	9.6
76시간이상	4810(6.2)	86.6	65.2	21.4
전체평균	77653(100.0)	53.7	50.5	-3.2

주당유급노동시간 (정규+ 초과)에 대한 평가시간 집단	노동패널조사			
	분포 명(%)	정규+ 초과 평가시간	분포 명(%)	평일+ 토+ 일 평가시간 <sup>3)</sup>
0시간	6036 <sup>4)</sup> (53.7)	0	1243(19.4)	47.1
1~17시간	94(0.8)	9.4	89(1.4)	62.5
18~25시간	119(1.1)	21.7	115(1.8)	35.3
26~35시간	206(1.8)	31.5	202(3.2)	44.0
36~45시간	1320(11.7)	42.3	1307(20.4)	51.8
46~55시간	1459(13.0)	50.1	1445(22.6)	59.0
56~65시간	883(7.9)	59.8	873(13.6)	65.8
66~75시간	604(5.4)	70.1	604(9.4)	75.4
76시간이상	526(4.7)	86.6	523(8.2)	87.4
전체평균	11247(100.0)	53.7	6402 <sup>5)</sup> (100.0)	59.2

주 1) 응답자 개인은 하나의 요일에 대한 시간일기자료만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일기시간의 주당 유급노동시간은 집단별로 각 요일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균(단위: 분)을 더한 후 60으로 나누어 구하였음.

2) 차이=평가시간 집단평균-일기시간.

3)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주당 유급노동시간 평균은 평일평균×5+ 토요일평균+ 일요일평균 값으로 계산함.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유급노동시간에는 출퇴근 이동시간이 포함됨.

4) 지난주에 소득활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189명이 Missing됨.

5) 지난주에 소득활동이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유급노동시간을 기재한 응답자가 550명임.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2004),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표 2>에서 보듯이 시간일기 상에 나타난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시간일기 기록과 그들 자신의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 사이에는 체계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 먼저, 전체적으로 시간일기에 나타난 주당 유급노동시간보다 주관적인 유급노동시간의 평가가 모든 집단에서 더욱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약 3.2시간 평가시간이 일기시간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일기에 나타난 실제 노동시간보다 자신들의 노동시간을 주관적으로 과대평가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대부분의 행동들처럼 노동은 다른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하는 시간동안 은행 일을 처리하거나, 신문을 읽거나, 개인유지 활동을 하거나 할 수 있다. 주관적인 유급노동시간의 평가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포함하여 노

동시간을 계산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일기에서는 이러한 시간이 노동시간에서 제외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현대의 삶의 속도와 관련된 문제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은 그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거나 더욱 빠른 속도로 일하고 있으면 그들이 더 오래 일하고 있다고 믿는다(Robinson & Godbey, 1997; 48-49). 따라서 사람들은 과중한 노동량, 노동속도와 노동강도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객관적인 시간일기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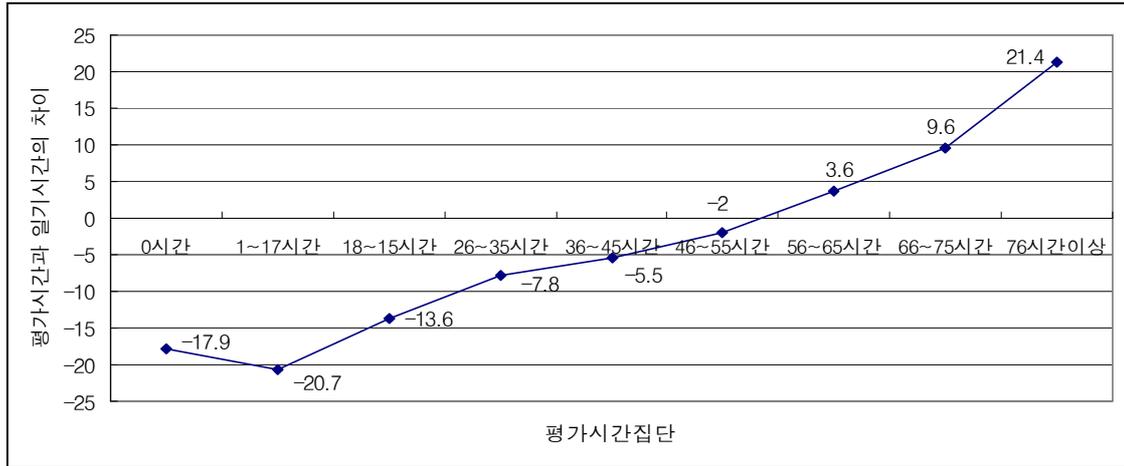
시간일기상에 나타난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기록과 그들 자신의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 사이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일정 시간을 기준점(주당 55시간)으로 하여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이 적을수록 그리고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이 증가하면 할수록 시간일기에 나타난 노동시간과의 차이가 증가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1시간이상~55시간이하까지는 주관적인 평가시간이 시간일기에 나타난 일기시간보다 더 적어서 그 차이가 음의 부호로 나타나지만, 56시간 이상에서는 주관적인 평가시간보다 시간일기에 나타난 일기시간이 더 적어 양의 부호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차이는 55시간 이하에서는 시간일기 상에 나타난 유급노동시간이 적은 사람일수록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시간이 더 적게 나타나고, 56시간 이상에서는 시간일기 상에 나타난 유급노동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시간이 더 길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생각해볼 수 있는 하나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평균 노동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거나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주류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점이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노동자들의 유급노동시간이 45~55시간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주당 55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적게 일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인식이 자신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보다도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줄여서 평가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56시간이상 일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것이고, 이러한 인식이 자신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보다도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늘려서 평가하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7)</sup>

『생활시간조사』에 나타난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는 다음의 [그림 1]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7) 미국사회 생활시간조사의 경우 주당유급노동시간의 일기시간에 대한 평가시간의 과대평가는 2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Robinson & Godbey, 1997: )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는 응답자가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기준시간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사회가 미국사회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평균적인 유급노동시간의 길이가 길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생활시간조사』의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노동패널조사』에서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평가시간과 『생활시간조사』에서의 평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sup>8)</sup>, 『생활시간조사』보다 『노동패널조사』에서 주당 36~45시간, 46~55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비율이 높고, 『생활시간조사』는 『노동패널조사』보다 35시간 이하와 56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주당평균노동시간은 53.7시간으로 『생활시간조사』와 『노동패널조사』 사이에 차이가 없고,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 집단별로도 평가시간에 많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패널조사』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른 평가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적게 하여 유급노동시간을 평가하는 방법보다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유급노동시간을 다른 10가지 행동시간과 함께 적도록 하여 유급노동시간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유급노동시간이 5.5시간 길게 나타났다. 하지만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유급노동시간에는 출퇴근시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성별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여성들은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해 남성보다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가정이 있다. 아래의 <표 3>이 성별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시간과 시간일기에 나타난 주당 유급노동시간의 차이이다.

<표 3>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 모두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 55시간을 기준으로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남성들은 주당 55시간 이하로 일한다고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평가한 경우 시간일기에 나

8) 『노동패널조사』는 2004년 자료이고,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조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표 3> 『생활시간조사』에서 성별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단위: 시간)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 집단	남성				여성			
	분포 명(%)	평가시간 집단평균	일기시간	차이	분포 명(%)	평가시간 집단평균	일기시간	차이
0시간	14010(38.6)	0	19.6	-19.6	24655(59.6)	0	16.8	-16.8
1~17시간	734(2.0)	9.8	34.0	-24.2	1242(3.0)	9.5	28.3	-18.8
18~25시간	616(1.7)	21.5	39.9	-18.4	948(2.3)	21.8	32.4	-10.6
26~35시간	826(2.3)	31.0	43.0	-12.0	1238(3.0)	31.4	36.3	-4.9
36~45시간	3340(9.2)	42.0	49.7	-7.7	2873(6.9)	41.5	44.4	-2.9
46~55시간	5721(15.8)	50.4	53.5	-3.1	3654(8.8)	50.1	50.3	-0.2
56~65시간	4723(13.0)	59.8	56.9	2.9	2923(7.1)	59.6	54.6	5.0
66~75시간	3366(9.3)	70.3	61.7	8.6	1974(4.8)	70.1	58.6	11.5
76시간이상	2924(8.1)	86.4	65.7	20.7	1886(4.6)	86.7	64.4	22.3
평균	36260(100.0)	55.9	53.7	-2.2	41393(100.0)	50.7	46.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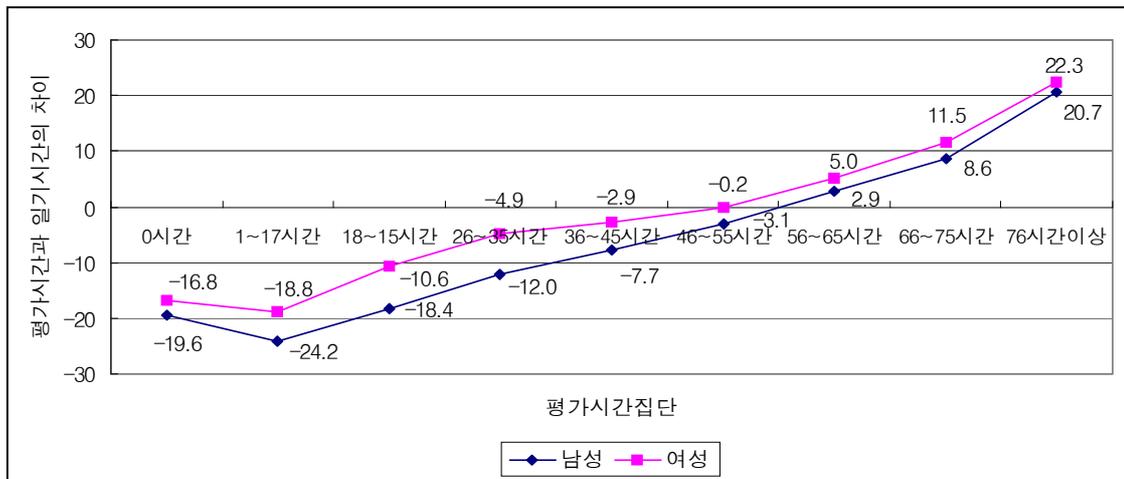
주: 1) 차이=평가시간-일기시간.

2) 응답자 개인은 하나의 요일에 대한 시간일자료만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일기시간의 주당 유급노동시간은 집단별로 각 요일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균을 더하여 구하였음.

3) 조사대상자 중에서 1주일에 1시간이상 수입이 되는 일을 한 사람을 대상(무급가족종사자는 18시간 이상)으로 함.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그림 2] 성별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타난 유급노동시간보다 과소평가하는 정도가 여성보다 훨씬 더 많고, 주당 56시간 이상으로 일한다고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평가한 경우에는 시간일기에 나타난 유급노동시간보다 과대평가하는 정도가 여성보다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아래의 [그림 2]에서 보듯이 모든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 집단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9)

9)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시간은 각 개인들의 시간이며, 시간일기에 나타난 주당 유급노동시간은 각 개인들의 하루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집단별 주당 평균시간을 사용하였으므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가 성 집단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회귀분석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이고 전통적으로 기대되는 성역할관념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경험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즉 남성들은 전통적으로 공적영역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55시간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전통적 성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관념 때문에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여성보다 강할 수 있다. 이것은 56시간 이상에서는 자신의 노동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정도가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욱 적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들은 무급노동(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가족보살피기 노동)을 전담하거나 시간제 직업에서의 경험이 더욱 많고 그러한 스케줄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당 55시간 이하로 일하는 경우에 자신의 노동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적고, 주당 56시간이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여성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노동시간 이상의 시간동안 노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여성은 유급노동시간에 대해 평가할 기준점을 남성보다 더 낮게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남성은 유급노동시간에 대해 평가할 기준점을 여성보다 더 높게 가지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시간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전통적인 무급노동담당자 역할에 46~5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까지 부과되게 되면 여성들은 이중부담(double burden)을 가지게 되고, 이중부담에 의해 남성보다 생활에서 더욱 급하고 시간에 쫓기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남성보다 유급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집단의 분포를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주당 유급노동시간이 없다고 응답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된 경우가 남성은 38.6%이지만 남성은 59.6%로 여성이 훨씬 높다. 또한 주당 35시간이하로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단시간노동의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 3. 종사상지위별 유급노동시간의 차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영업자와 같은 특정 형태의 노동자들에게서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표 4>에서 종사상지위별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시간과 시간일기에 나타난 주당 유급노동시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에서 보듯이 임금근로자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1.6시간 과소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6.9시간 과대평가하고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46~56시간 사이에서 과소평가와 과대평가집단이 나누어지는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36~45시간 사이에서 과소평가와 과대평가집단이 나누어지고 있다. 이는 비임금근로자들의 경우 임금근로자보다 자신의 노동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 일기시간에 비해 과소평가하는 정도는 낮고, 과대평가하는 정도는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집단의 분포를 보아도 나타난다.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36~65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고,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당 46시간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많아 비임금근로자가 임금근로자보다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이 나타난다.

<표 4> 『생활시간조사』에서 종사상지위별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단위: 시간)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 집단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분포 명(%)	평가시간 집단평균	일기시간	차이	분포 명(%)	평가시간 집단평균	일기시간	차이
1~17시간	1022(3.8)	10.6	34.5	-23.9	428(3.7)	10.3	30.9	-20.6
18~25시간	972(3.6)	21.9	37.9	-16.0	592(5.1)	21.3	31.5	-10.2
26~35시간	1330(4.9)	31.4	39.9	-8.5	734(6.4)	31.0	37.3	-6.5
36~45시간	4885(18.2)	42.0	48.4	-6.4	1328(11.5)	40.9	42.5	-1.6
46~55시간	7489(27.8)	50.3	53.5	-3.2	1886(16.3)	50.2	47.8	2.4
56~65시간	5447(20.2)	59.7	57.7	2.0	2199(19.0)	59.9	52.1	7.8
66~75시간	3407(12.7)	70.2	62.7	7.5	1931(16.7)	70.3	56.7	13.6
76시간이상	2362(8.8)	85.1	67.1	18.0	2448(21.2)	88.0	63.4	24.6
평균	26914(100.0)	52.8	54.4	-1.6	11546(100.0)	58.1	51.2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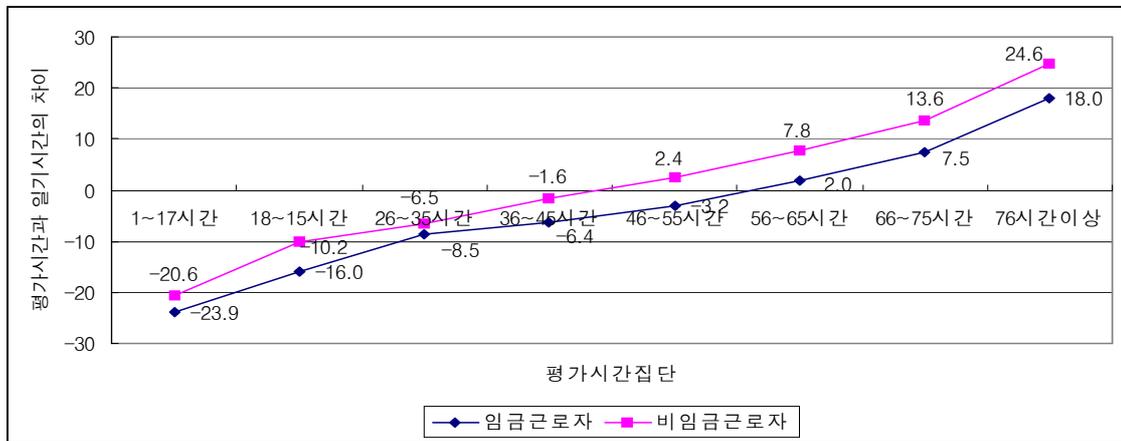
주 1) 차이=평가시간-일기시간.

2) 종사상지위는 주당 1시간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무급가족종사자는 주당 18시간 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당 유급노동시간이 0시간인 경우는 없다.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이에 다음의 [그림 3]에서 보듯이 모든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 집단에서 임금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3] 종사상지위별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임금근로자보다 비임금근로자들이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은 그들의 노동의 성격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들의 경우 가게를 보면서 TV를 시청하거나, 이웃과 잡담을 나누거나, 아이를 돌보는 등의 신축적인 시간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시간은 시간일기에서 유급노동시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는 일하는 도중에 이러한 유급노동 이외의 활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노동장소에서 일

어나는 활동들이기 때문에 유급노동이외의 시간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sup>10)</sup>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유급노동과 그 이외의 행동들이 연계되어 발생하거나 동시행동을 하게 될 때 노동자들은 더욱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해 과대평가를 하게 된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시간들 사이에 경계가 확실하지 않아 유급노동이 다층적이고 중복적인 활동들로부터 떨어지기가 어려우며,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이 함께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이사이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사람들은 한 가지 행동의 시간을 과대평가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1)</sup> 즉 비임금근로자들의 경우 가게를 운영하면서 TV를 보거나, 식사를 하다가도 손님이 오면 일을 하고, 장기를 두면서도 항상 가게의 운영에 신경쓰고 있을 수 있다.

또한 임금근로자들이 자신의 노동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같이 장시간 노동으로 알려진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동부에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는 『노동통계조사』의 노동시간 통계치 외에도 더 긴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임금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통근시간이나 업무와 관련된 회식시간 등이 누락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순수하게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시간이 적게 측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시간일기에서 유급노동시간은 순수하게 노동한 시간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유급노동 일기시간보다도 유급노동 평가시간이 적다는 것은 임금근로자들과 사업주가 법정근로시간이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노동시간을 관계적으로 응답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성을 통제하면서 종사상지위에 따른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 다음의 <표 5>와 <표 6>이다. 표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노동을 가장 과대평가하는 집단은 비임금근로자 여성이며, 다음은 비임금근로자 남성, 임금근로자 여성, 임금근로자 남성의 순이다. 또한 자신의 노동을 가장 과소평가하는 집단은 임금근로자 남성, 비임금근로자 남성, 임금근로자 여성, 비임금근로자 여성의 순이다. 여기에서 성이라는 변수를 통제하자 임금근로자 여성은 임금근로자 남성보다 자신의 노동을 과소평가하는 집단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주당 56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임금근로자 여성은 임금근로자 남성

---

10) 이러한 일기시간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일기 조사방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먼저, 시간일기는 타임와치(time watch)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균적인 시간량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일하는 도중 가족과 통화하거나 은행업무를 보는 경우 전자는 여가시간의 교체활동에, 후자는 가정관리의 가정경영활동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에 무급노동시간의 경우 다른 연구에 의하면 하루평균 11시간(윤택림, 1996)에서 15시간까지 계산된다(한국민우회, 1991). 하지만 생활시간조사에서 전업주부의 하루평균 무급노동시간은 6시간 33분이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이러한 성격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다. 또한 시간일기 자료는 실제 그들이 행한 시간을 나타낼 뿐 그들이 그 행동을 수행하기위해 미리 계획하고 구상하는 시간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며, 시간사용의 배후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 이유, 노력, 그 활동이 얼마나 생산적인지, 그러한 활동들이 개인들에게 주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obinson & Godbey, 1997).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성격에 대해서는 손문금(2005), 『맞벌이부부여성의 이중부담과 시간의 특성: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6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이러한 시간의 특성들은 전형적인 여성시간의 특성으로 여성시간의 특성은 Griffiths(2000), 『세계 밖의 시간』 5장과 6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보다 자신의 노동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자신의 노동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다.

<표 5> 남성의 종사상지위별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단위: 시간)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 집단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분포 명(%)	평가시간 집단평균	일기시간	차이	분포 명(%)	평가시간 집단평균	일기시간	차이
1~17시간	374(2.4)	10.9	40.0	-29.1	648(5.8)	10.4	37.7	-27.3
18~25시간	350(2.2)	21.6	45.2	-23.6	622(5.5)	22.0	33.7	-11.7
26~35시간	454(2.9)	31.0	45.2	-14.2	876(7.8)	31.6	40.5	-8.9
36~45시간	2614(16.7)	42.3	50.7	-8.4	2271(20.2)	41.7	45.7	-4.0
46~55시간	4503(28.7)	50.4	54.6	-4.2	2986(26.5)	50.1	49.9	0.2
56~65시간	3436(21.9)	59.8	58.3	1.5	2011(17.9)	59.6	53.4	6.2
66~75시간	2315(14.8)	70.3	63.1	7.2	1094(9.7)	70.0	58.6	11.4
76시간이상	1622(10.4)	85.5	66.5	19.0	740(6.6)	84.1	64.7	19.4
평균	15668(100.0)	55.5	56.8	-1.3	11248(100.0)	58.4	53.4	5.0

<표 6> 여성의 종사상지위별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단위: 시간)

주당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 집단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분포 명(%)	평가시간 집단평균	일기시간	차이	분포 명(%)	평가시간 집단평균	일기시간	차이
1~17시간	188(2.9)	10.6	31.6	-21.0	240(4.7)	10.0	26.1	-16.1
18~25시간	266(4.1)	21.3	33.9	-12.6	326(6.3)	21.3	29.7	-8.4
26~35시간	372(5.8)	30.9	37.2	-6.3	362(7.0)	31.1	33.9	-2.8
36~45시간	726(11.3)	41.0	45.8	-4.8	602(11.7)	40.8	38.7	2.1
46~55시간	1218(19.0)	50.4	51.8	-1.4	668(13.0)	49.8	44.1	5.7
56~65시간	1287(20.1)	60.0	56.7	3.3	912(17.8)	59.7	50.2	9.5
66~75시간	1051(16.4)	70.3	62.0	8.3	880(17.1)	70.3	54.4	15.9
76시간이상	1302(20.3)	87.6	68.4	19.2	1146(22.3)	88.4	61.8	26.6
평균	6410(100.0)	48.9	50.9	-2.0	5136(100.0)	57.6	48.5	9.1

주: 차이=평가시간-일기시간.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이러한 성별, 종사상지위별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는 다음의 [그림 4]에 자세히 표현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임금근로자 여성은 임금근로자 남성보다 위에, 비임금근로자 여성은 비임금근로자 남성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4] 성별/종사상지위별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



자료: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V. 요약 및 결론

이 글에서는 시간일기 상에 나타난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기록과 그들 자신의 주당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 사이에는 체계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인은 이러한 차이를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일기시간이 평가시간보다 더욱 정확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기술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전체적으로 약 3.2시간 평가시간이 일기시간보다 길게 나타나 유급노동시간이 과대평가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행동들처럼 노동은 다른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주관적인 유급노동시간의 평가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포함하여 노동시간을 계산하고, 시간일기에서는 노동이외의 시간이 유급노동시간에서 제외되고 계산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는 현대의 삶의 속도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과중한 노동량, 노동속도와 노동강도에 대한 반응의 하나로 객관적인 시간일기 노동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짐작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는 주당 46~55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과소평가하고, 그 이상은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평균 노동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거나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주류에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시간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 여성들은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에 대해 남성보다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성역할관념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경험, 여성의 이중부담에 따른 시간부족인식의 영향으로 해석해보았다. 셋째, 임금근로자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전체적으로 1.6시간 과소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비임금근로자는 자신의 유급노동시간을 전

체적으로 6.9시간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비임금근로자들은 동시행동이 많이 발생하고, 노동장소에서 노동과 노동 이외의 다른 행위들이 혼합되어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들의 노동의 성격을 통해 해석해 보았다. 또한 임금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통계치 외에도 더 긴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다.

본 글은 성과 종사상지위, 노동시간에 따라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하는 자기기입식 유급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급노동시간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기기입식 유급노동시간과 시간일기에 나타난 유급노동시간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소는 사회심리적 요소들, 직업이나 종사상지위와 같은 노동조건, 성이나 연령같은 인구학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또한 유급노동시간에 대한 평가시간이 긴 사람들일수록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차이가 큰 것은 노동시간이 긴 한국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 유급노동시간의 조사 방법이나, 한 개인이 가진 사회인구학적 위치에 따라 평가시간과 일기시간의 유급노동시간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보는 작업들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부표 1> 시간분류와 행동분류

시간분류	행동분류	『생활시간조사』 자료 행동분류표의 내용
개인유지시간	개인유지	수면, 식사 및 간식, 개인관리, 건강관리 등
유급노동시간	일	고용된 일 및 자영업, 무급가족종사일, 농림어업의 무급가족종사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구직활동, 일관련 물품구입, 기타 일관련 행동
무급노동시간	가사노동	음식준비 및 정리,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가정경영, 그 외 집관리, 기타가사일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시장보기, 쇼핑하기, 내구재 구매관련 행동, 가재도구·집수리 서비스받기, 세차·차량관련 서비스받기
	가족보살피기	미취학아이 보살피기, 초·중·고생 보살피기, 배우자 보살피기,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그 외 가족 보살피기
여가시간 (자유시간)	조직적 교제활동	참여 및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적 교제활동	교제활동, 유흥(술, 춤, 노래방)
	레저활동	문화활동 관람 및 문화적 행사참여 취미활동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일반인의 학습, 학교학습, 학교외학습 등
	대중매체 활동	TV, 신문, 잡지, 라디오, 비디오, CD·Tape, 컴퓨터정보 이용
이동시간	이동활동	출퇴근, 통학, 일 관련이동, 여가활동 관련이동,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등
기타시간	기타활동	생활시간조사 설문지기입, 그 외 기타

주: 『생활시간조사』에서 학습시간은 자유시간에 포함하였다. 『노동패널조사』에서 학업 및 자기개발활동을 묶어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부표 2> 생활시간조사와 노동패널조사의 하루생활시간의 차이

(시간:분)

생활시간	평일			토요일			일요일		
	노동패널	생활시간	차이	노동패널	생활시간	차이	노동패널	생활시간	차이
유급노동시간	5:24	3:47	1:37	1:42	3:22	-1:40	1:42	2:01	-0:19
무급노동시간	2:06	1:56	0:10	2:18	2:02	0:16	2:36	2:07	0:29
자유시간	7:12	6:26	0:46	9:42	6:32	3:10	9:42	7:07	2:35
개인유지시간	8:36	10:10	-1:35	8:42	10:16	-1:34	9:06	11:06	-2:00
이동시간	-	1:33	-	-	1:39	-	-	1:31	-
기타시간	0:42	0:08	0:34	0:48	0:09	0:39	0:54	0:08	0:46
전체	24:00	24:00	-	23:12	24:00	-	24:00	24:00	-

주: 『노동패널조사』는 하루생활시간의 합이 24시간이 되지 않는 20명을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노동패널조사』에서 토요일의 생활시간 합이 24시간이 되지 못한다.

## 참고문헌

- 통계청(1999),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4), 『노동패널조사』 원자료.
- 김재훈(2001),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법정정책적 방향, 『노동법학』 제11호: 1-34.
- 문숙재(1997), 『생활시간연구』, 신정.
- 손문금(2005), 『맞벌이부부여성의 이중부담과 시간의 특성: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훈-김유선(2003), 노동생활 질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정규·비정규의 분절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60호: 129-149.
- 이은진(2002), 노동시간의 결정요인, 『노동사회학 발표문』: 299-300.
- 노동부 DB, 『노동통계조사』, 『소규모사업체조사』 보고서. <http://www.molab.go.kr>
- 통계청 DB, 『경제활동조사』 보고서. <http://www.nso.go.kr>
- KBS(1985, 1990, 1995), 『국민생활시간조사』 보고서.
- Griffiths, Jay(2000), *A Sideways Look at Time*, 박은주 옮김(2002), 『시계밖의 시간』, 당대.
- Hochschild, Arlie R.(1989), *Second Shift*, Viking, 백영미 옮김(2001), 『돈 잘 버는 여자 밥 잘하는 남자』, 아침이슬.
- \_\_\_\_\_(1997), *The Time Bind*, Henry Holt.
- Jacobs, Jerry A.(1998), "Measuring Time at Work: An Assessment of the Accuracy of Self Reports", *Monthly Labor Review*. 121(12): 42~53.
- Jacobs, Jerry A. & Gerson, Kathleen(1998), "Who are the Overworked Americans", *Review Social Economy*, 56: 442-459.
- Robinson, John P. & A. Bostrom(1994), "The Overestimated Workweek? What Time Diary Measures Suggest", *Monthly Labor Review*, August: 11~23.
- Robinson, John P. & Godbey, Geoffrey(1997),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Robinson, John P. & Jonathan Gershuny(1994), "Measuring Hours of Paid Work: Time-Diary vs. Estimate Questions", *Bulletin of Labour Statistics* 1: 11-17.
- Schor, Juliet B.(1992),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Basic Books.
- \_\_\_\_\_(1999), *The Overspent American*, Basic Books.
- Sullivan, Oriel and J. Gershuny(1998), "Cross-national Changes in Time-use: Some Sociological (Hi)stories Re-examined",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No.52 Issue No. 2, 331-347.